

2022 설 가정예배

MDX 목동제일교회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같이
기 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6~8 (신약 332면)	인 도 자
설 교	믿음, 소망, 사랑의 새해	설 교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6~8 (신약 332면)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8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지며,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나의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되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진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소망으로. 빌립보서 3:14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에서도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으로. 본문 8절에서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심경은 개역한글 번역 성경에서 흉배라고 했습니다. 흉배는 군인의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가슴은 심장이 뛰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도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도의 심장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8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 도		가족대표
찬 송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폐 회	주기도문	다 같이